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Franciscan Missionaries of Mary

나눔

희망을 지피는

2020.11



우리가 기억하는
아름다운 당신

마리 드 라 빠시옹
Marie de la Passión
(1839~1904)



우리가 기억하는 아름다운 당신

고지은 크리스티나.FMM

기억한다는 것은 가깝건 멀건 지난 일에 대해 떠올리는 것입니다. 어떤 장소나 음식을 보고 이곳을 좋아했던 누군가가 생각난다던가 이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던 그 날이 떠오른다던가. 또는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스승님의 유언, 되새길만한 가르침이나 보고 들은 것을 잊지 않으려고 애를 쓰기도 하지요. 사실 우리의 신앙도 이런 기억에 근거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도 알고 보면 창조주와 구원자이신 하느님을 끊임없이 기억하려는 노력의 산물이고, 우리가 매일 행하는 미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 수난과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고 제대 위에서 재현(再現, Anamnesis)하면서 그분처럼 살려고 기억을 새롭게 하는 것이지요.

11월이 되면 자연스럽게 본회 창설자인 “마리 드 라 빠시옹”을 기억하게 됩니다. 1839년 프랑스 낭트에서 태어나 1904년 11월 15일, 이탈리아의 산레모 수녀원에서, 그렇게 바라던 하느님과 일치에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수도회가 창설된 지 143년, 창설자가 돌아가신 지 116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렇게 100년을 훌쩍 넘긴 시간이면 잊혀져도 벌써 잊혀질 만한데, 시간이 흘러도 소중하게 기억하는 이유는, 그의 삶을 통해 보여준 하느님을 향한 길을 따르는 사람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 아닐까요? 지금도 79개 나라에서 6,000여 명에 가까운 여성 수도자들이, 그리고 많은 평신도가 마리 드 라 빠시옹을 통해 보여준 하느님 사랑의 현존과 그분을 따르는 길을 배우고 되새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느님 사랑에 사로잡혔던 이 여성의 전기를 쓴, 당시 프랑스의 역사학자이자 대표적인 가톨릭 사회주의 학자였던 조르쥬 고요(George Goyau) 교수는 “유럽 여성이 낯설고 요구가 많은 동양에서



선교 생활을 직접 체험하고 설립한 최초의 여성 선교 수도회”의 창설자인 마리 드 라 빠시옹을 선교사업의 모델로 제시합니다. 선교수도회이기에 더욱 필요한 관상적 측면, 문화와 역사가 다른 선교지에서 바쳐 드리는 하루하루의 크고 작은 봉헌들, 종교적 행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침묵으로 현시되는 성체처럼 존재로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이 모두를 프란치스칸 형제애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19세기의 많은 선교수도회 사이에서도 단연 돋보였나 봅니다. 온 생애를 통해 하느님 나라만을 희망하고 애썼던 충실하고 아름다운 여인!

무엇보다 마리 드 라 빠시옹이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근본적인 태도로, “보십시오

시오, 주님의 종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십시오.”(루카 1,38)라고 하신 마리아의 자세입니다. 이는 어려운 선교지의 삶에서, 고단한 사도직 현장에서, 현시된 성체 앞에서, 순수한 지향으로 바치는 삶을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마리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리아처럼 세상에 “그리스도를 얻고 주고 다시 나자렛의 그들로 돌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쁜 소식(복음)’이 되라는 것이지요. 내 곁의 이웃들에게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나자렛의 그늘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하느님의 시선 아래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마리 드 라 빠시옹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복음으로 걸어가십시오!”라고 초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의 완성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과 일치에 이르는 이 비결을 일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오랜 기억을 더욱 새롭고 빛나는 다양한 방식으로 “재현”해 가는 것이 아닐까요?

그 희생을 기억합니다.

이영주 스텔라.FMM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이 한창입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보이지 않는 희생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백신 개발을 위해 사용된 동물들입니다. 동물을 “사용했다”고 하니 어감이 좀 불편하게 느껴 집니다. 동물도 생명이 있는 존재이므로 여느 물건과는 다르게 여겨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저는 한 때 목숨이 붙어있었던 그들을 생각하여 “희생”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동물을 보는 시각은 시대에 따라 변해왔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René Descartes 1596-1650)는 동물을 ‘생물학적 로봇’이나 ‘의식을 지닌 기계장치’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언어와 이성이 있는데 동물은 그렇지 않고, 단지 여러 장기와 몸으로 이루어져 반응을 일으키므로 기계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19세기 공리주의자인 존 스튜어트 밀과 제레미 벤담은 존엄성이란 이성의 유무가 아니라 고통을 느끼는 정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현대에 와서 동물의 권리는 더욱 중요하게 여겨졌는데 「동물 해방」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피터 싱어(Peter Singer 1946-)나 톰 리건(Tom Regan 1938-2017) 등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렇듯 다양한 관점에도 불구하고 동물실험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신약 개발을 비롯하여 각종 유해물질이나 화장품, 세제 등 생활용품의 안전성을 시험하고, 우주비행 실험을 위해 개나 원숭이를 우주선에 태워 보내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심리학 분야에서도 동물실험은 행해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도 한 해 동안 371만 2,380 마리가 동물실험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동물실험을 하지 않으려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실험을 더 많이 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더 큰 논란과 위험이 뒤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실험에서 불편심을 느끼는 것은 그것이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생명을 대하는 태도는 같은 인간을 대하는 태도와 연결됩니다. “이 세상의 다른 피조물들에 대한 무관심이나 잔혹함은 언제나 어느 모로든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여서 동물을 학대하도록 이끄는 비열함은 곧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찬미받으소서」 제92항)

동물은 하느님의 피조물로서, 인간만큼은 아니어도 나름대로의 존재론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들도 창조 때에 “땅 위에 가득히 번성하여라”는 하느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인간의 먹거리이자 도구이며, 경우에 따라 오락이나 위안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자연 질서 안에서 인간은 여러 가지로 동물에게 의존하고 있지요.

비온 뒤 길 위에 말라붙은 지렁이 한 마리를 묻어주는 수녀님을 보았습니다. 빗자루로 쓸어버리면 그만인 것을, 나뭇잎 두 장을 마주대고 감싸더니 조심조심 꽃밭 한 귀퉁이로 가지고 갑니다. 아마도 ‘생명감수성’이 풍부한 분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수성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같은 공명을 울리겠지요. 인간의 삶을 위해 동물은 필요합니다만 최대한 그 생명을 존중해야겠습니다. 백신개발 뉴스를 들으면서 관계자들의 수고와 함께 실험동물들의 희생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참된 힘, 그것은 하느님입니다.

참된 힘, 그것은 하느님입니다. 지상에서 어떤 힘이 진리와 애덕일수록 그는 참된 힘입니다. 이 아름다운 삼위일체의 품속에 들어갈 때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참된 힘, 즉 진리와 애덕이신 하느님으로 온통 채워져 다시 나오게 됩니다. (제가 본 것에 따르면) 내가 세상에 참된 힘을 전달해줄 수만 있다면 이 세상 전체를 하느님께 드리게 되리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진리와 사랑에 반대하는 힘이 참된 힘을 퍼뜨리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이 방해만 없다면 진리와 사랑은 저절로 퍼져갈 텐데요. 참된 힘을 전파하는 데에는 항상 장애가 있기 마련인데, 사실 장애물만 없다면 사랑과 진리의 나라는 스스로 실현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를 책망하는 “만일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를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너희의 죄 속에서 죽게 되리라 (요한 8,24).”는 말씀은 나만이 아니라 진리와 애덕에도 해당된다 하겠습니까. 그들은 복음을 그럴 듯하게 포장하였으며, 그 결과, 스스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가(진리와 애덕) 누구인지를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너희의 죄 속에서 죽게 되리라. 이때 성프란치스코는 꼬르드를 울리게 했다고 하신 우리 할아버지의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작은형제회가 이 말씀을 언제까지나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밤비노께서 내가 아라첼리에서 이 꼬르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은 참으로 위안을 주는 빛입니다. 꼬르드는 오직 하나, 복음 밖에 없습니다. 꼬르드는 진리의 애덕이요, 애덕의 진리, 하느님 자신의 진동(vibration)입니다. 만일 신부님들이 이 복음의 진동을 울려 퍼지게 하지 않는다면 신부님들은 죄 속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성프란치스코의 힘, 그것은 참된 힘입니다.

- 마리 드 라 빠시옹 영적노트46



자동 이체를 원하시는 분은 도장, 통장,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아래 은행을 방문하셔서 이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금주 : 재) 성 프란치스코 수녀회

국민은행 362737-04-000395

농협 100072-51-060834

* 후원금이 아닌 미사예물이나 봉헌금은 다음 계좌로 보내주세요.

농협 352-1499-1313-23 예금주 : 김계숙

후원회 : 010-2821-8174 수녀원 : 02-865-8174

E-Mail : fmmssp@hanmail.net

회원님들의 희생과 수고, 사랑으로 보내주신 후원금에 감사드립니다.

10월 1일 ~ 10월 31일까지 입금하신 후원자 명단

(재)고려문화재단	강경아	강미현	강승완	강신연	강연호	강지우(왕효준)	고대완	
고월순	고유연	고재영	고지영	고희숙	공해용	구영희	구옹회 권순익 권영오	
금부동	금창호	김경미	김광기	김광자	김귀선	미리암 김귀선	스테파니아 김남기	
김덕칠	김도상	김도영	김동일	김동현	루가 김두현	김두환(김철형)	김득현 김미리	
김미애자	김민규	김병수	케냐 김상규	김상률	김상연	김상태	김셋별 김성용 김성원	
김성환	김수경	김수미	김수자	세실리아	김순철	김시운	김시준 김애자 김연진	
김영덕	프란치스코	김영옥	김영운	김영재(허갑수)	김영주	김영희	김옥림 김옥주	
김용덕	김용수	김용식	김용자(윤소라)	김용주	김용준	김원진	김유정 김인희	
김재식	김재욱	김정숙	마리아	김정웅(김명신)	김정임	엘리사벳	김정주 김종연	
김정혜(정구충)	김주옥	김준희	김지혜	김진미	김진숙	알데군다	김진식 김진옥	
김춘자	루갈다	김춘자	안나 김태욱	김해자	김현숙(최지명)	김혜겸	김혜영 김호생	
김홍양	김희재	나숙희	나정순	남봉원	노미경	노병덕(권정희)	노봉근 노석심	
노연주	노정애	류순자	명영희	문성식	민정웅	박노성	박라희(임영희) 박민선	
박병옥	박병주	박성근	박성길(정은아)	박성준	다니엘	박성준	도미니꼬 박성현	
박수경	박수인	박순옥	박양순	박연애	박용숙	데레사	박원서 박윤실 박은정	
박은희	박인호	박재용	박정선	박정순(임현서)	박정식	박정연	박찬순 박태분 박현희	
박홍권	박화자	박희수	박효정	박희순	방상만	사도요한	방웅 방진 배운숙	
배인호	배장열	배철희	백미자	백성대	변복자	변태식	삼성동성가장	나눔회 서덕순
서춘자	서태진	서현수	석상령	성상모	성영주	성옥이	소재록 손순덕 손윤희	
손은주	손정례	송비아	송순이	송승윤(김영임)	송영희	송정애	송채영 송혜경	
신승일	신주화	신희식	심귀선	아가맘2호	안미령	안양금	양미경 양영자 양윤석	
양종한	오숙자	오영희	오옥형(최민귀)	우복명	우영희	윤남동	빈첸시오 원ENG	
원세경	유미경	유병춘	유복희	유시연	유영재	유은분	유은정 유춘성 육동배	
유희숙	프란치스	유희정	헤레나	윤경숙	윤규현	윤명희	윤문섭 윤미숙	데보라
윤보미	윤봉수	윤순자	윤순희	윤정희	윤한희	윤현숙	이갑수 이강모 이경로	
이관훈	이광진(홍기원)	이광희	이귀순	이기향	이기혁	이동세	이동준 이동현 이명혜	
이명순(이선영)	이미자	이민희	이복순	이상문	이성엽	이성혜(유주영)	이연신	
이연실	이연재	이영혜	이옥자	이용길	이윤신	이은주	이인숙(경동메디칼) 이인숙로사	
이정란(최윤)	이정숙	데레사	이정숙	마리아	이정숙	수산나	이정원 이정준	
이정하	이정희	소피아	이준우	이지인	프란체스카	이창석	이태금 이필단 이향남	
이해일	이현순	이혜숙	이홍식	인용석	인후작	은형제	임도원(임영희) 임승욱	
임주리	임지원	임호	장민정	장세옥	장영문	장영순	장영표 장우영 장원태	
장현아	전순자	전영관	전충엽	정경원	정경필	정명국	정미영 정복순 정부강	
정석영	정성민	정소영	정수인	정숙자	정영숙	정옥희	정인순 정재영 정진명	
정재훈(정지호)	정진숙	정향숙	젼마	정혜경	정혜숙	플로라	정희파 키스탄 조남섭	
조상위	조석금	조수미	조재호	조정희	조조식	조혜영	조화숙 조희공 조희무	
주)가나	스틸	진성자	진숙인	진신아	최규범	최금영	최금영 최두진 최성순 최숙규	
최순애	최연희	최옥자	최원단	최원철	최인석	최일순	최지은 최향미 최혜정	
최휘선	추상식	추수옥	케냐 추영숙	추종현	태계남	파키스탄	박진 하옥경 한기훈	
한순옥	한영미	한옥선	한은희	한인숙	한진경	한효정(권오현)	허정자 현경미	
홍말숙	홍명숙	홍미자	홍민선	홍민희	홍성란	홍성란	홍세아 홍수봉 홍승희	
홍은숙	홍익기	황경희	황달수	황인복	황정숙			